

2. 퇴사자 계정 미삭제로 인한 내부 자료 유출

— “이미 퇴사한 사람입니다”

오전 8시 43분.

보안관제 시스템에 평범한 로그인 기록 하나가 올라온다.

- VPN 접속 성공
- 해외 IP 아님
- MFA 정상 인증
- 접근 권한 이상 없음

관제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 로그로 넘어간다.

계정 이름도 익숙했다.

김현우 대리.

문제는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사업전략팀 회의실.

다음 달 예정된 대형 입찰 프로젝트 때문에 모두 예민해져 있었다.

“이번 건 무조건 따야 합니다.”

임원 목소리가 무겁다.

경쟁사보다 먼저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고,
가격 전략과 공급 조건은 극비였다.

팀원들은 최근 몇 주간 밤샘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ERP 운영 담당자가 인사팀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는다.

“지난달 퇴사자 계정 정리 현황 요청드립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을 조회하다가 잠시 멈춘다.

김현우.

상태:
활성화

“어?”

퇴사일은 한 달 전이었다.

급하게 로그를 다시 조회한다.

VPN 접속 기록.
메일 접속.
그룹웨어 다운로드.
파일 서버 접근.

모두 정상 사용자 권한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

퇴사 이후에도 접속이 계속 있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 차단도 없었다.

운영 담당자가 인사팀에 전화를 건다.

“김현우 대리 계정 아직 살아있는데요?”

잠시 정적.

“퇴사 처리 했는데요?”

“계정 삭제 요청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퇴사 처리 메일 보냈잖아요.”

“메일만 보내시면 안 되고 시스템 종료 요청도 같이 와야...”

통화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진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건 지나간 뒤였다.

보안팀이 긴급 분석에 들어간다.

퇴사 후 첫 로그인 시점:

퇴사 다음 날 오전 7시 12분.

접속 위치:

국내 ISP 회선.

다운로드 기록:

- 신규 사업 전략 문서
- 가격 정책 자료
- 협력사 단가표
- 입찰 제안서 초안
- 내부 조직 개편안

총 다운로드 용량:

약 18GB.

누군가 종얼거린다.

“이 정도면 거의 사업부 전체인데...”

김현우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상태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경쟁사가 최근 제출한 제안서 구조가
자사 내부 초안과 지나치게 유사했던 것이다.

표현 방식.

가격 배치.

심지어 오타자 위치까지 같았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오후 5시 18분.

긴급 임원회의.

사업본부장이 테이블을 내리친다.

“퇴사자 계정 하나 정리 안 해서 이 사달이 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인사팀은 말했다.

“퇴사 처리 공지는 했습니다.”

IT 운영팀은 반박했다.

“권한 회수 요청이 없었습니다.”

보안팀은 조용히 로그 화면만 바라본다.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행이었다.

퇴사 처리 프로세스는 늘 애매했다.

- 인사팀은 “메일 보냈다”고 생각했고
- 운영팀은 “요청 없었다”고 생각했고
- 현업 부서는 “알아서 정리됐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정 하나가 그대로 살아남았다.

한 달 동안.

추가 분석이 이어진다.

퇴사자는 기존 MFA 기기까지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비밀번호 변경 이력 없음.
접속 차단 없음.
권한 회수 없음.

사실상 현직 직원과 다를 게 없었다.

누군가 낮게 말한다.

“우리가 직접 문 열어놓은 거네요…”

밤 9시 02분.

긴급 조치가 시작된다.

- 전체 퇴사자 계정 전수 점검
- VPN 강제 로그아웃
- 미사용 계정 잠금
- ERP 권한 재검토
- 계정 종료 프로세스 자동화 검토

메신저 알림이 끝없이 울린다.

그리고 보안팀장은 마지막 보고서에 문장을 남긴다.

“퇴사자 계정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회사 전체의 방심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평소와 같은 화면.
평소와 같은 업무.

하지만 누군가는 밤새 로그를 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침입은 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끔은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걸.